

의료관광에 대한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인식과 활성화 방안

김주희, 송현정, 윤지수, 이수정, 표다혜, 이병호‡
영산대학교 치위생학과

A Study on Dental Hygiene Students' Knowledge of Medical Tourism and Activation Plans

Ju-Hee Kim, Hyun-Jeong Song, Ji-Soo Yoon, Soo-Jung Lee, Da-Hye Pyo, Byung-Ho Le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Youngsan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had collected 204 dental hygiene students in Busan and Kyungnam, in order to investigate knowledge of medical tourism and activation plans of dental hygiene students. A survey was conducted from April 3 through April 17, 2013, by using structured,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percentage, mean, t-test, using the SPSS software version 20.0 program.

The obtained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mean of hygiene student's medical tourism level in Korea was 3.35 and The degree of activation of medical tourism in Korea was 3.17 out of 5.
2. In terms of the mean of medical tourism competitiveness plan, advancement of medical(4.37) is the highest, followed by medical system(4.15), medical tourist promotion(4.08), cost of treatment(3.84), and development of tourism resources(3.59).

This study will become a basic data for development direction for the medical tourism.

Key words : Medical Tourism, Dental hygienist

‡Corresponding author(leebh@ysu.ac.kr)

I. 서론

21세기에 새로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사회경제적으로 극대화된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의료관광산업은[1], 첨단 의료시설과 기술을 기반으로 환자가 치료를 위해 자국의 의료시스템 대신에 국경을 넘어 해외에 가서 의료서비스를 받는 모든 행위인 동시에[2], 치료와 함께 휴양, 레저, 문화 활동을 관광과 연계하는 성장 동력 산업으로[3], 질병의 예방 및 치료 혹은 육체적, 정신적 아름다움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특수이익집단이 선택하는 관광의 유형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4].

의료관광객의 증가에 따라 해외에서는 여러 가지 방향과 프로그램을 개발해 의료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다. 열대 해변 휴양지, 북부 산악 휴양지, 불교 문화유산 등의 관광자원을 고루 갖추고 있는 데다 항공 교통의 중심지라는 위치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태국 정부는 최근 관광과 의료를 접목한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 정책을 실행중이며, 아침에 건강검진을 받고 오후에 시내관광을 마치고 돌아오면 검진 결과를 볼 수 있는 패키지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5]. 또한 싱가포르의 호텔 같은 래플스(Raffles) 종합병원과 관광 상품을 결합시킨 의료관광이 유명한데 싱가포르관광청에 따르면 건강관리를 하나의 부서로 신설하여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병원에 대해 대폭적인 지원을 강화하며 싱가포르의 의료시스템과 각 여행사를 연계한 건강 여행 패키지 등의 상품개발을 지원하고 있다[6]. 이에 비해 국내의 의료관광은 온천관광, 발마사지, 안마 프로그램과 한방 헬스 투어상품 등에 불과하며, 상품내용도 주기능이라 할 수 있는 치료기능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다. 또한, 해외 의료관광 경쟁국의 경우처럼 유명병원 및 호텔을 연계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며, 의료관광 상품 개발 전문가도 부족한 상황이다[7]. 일찌감치 의료관광 사업을 시작한 태국, 싱가포르, 인도 등에 비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환자 수는 미미한 수준으로, 이는

의료관광이 고부가 가치를 내는 사업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의료관광이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 알선 및 유치하는 부정적 행위로 인식하고 있으며 법과 제도상으로도 이를 규제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8]. 실제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국내의료기관의 외국인 환자 유치 성과가 부진한 이유로 정보의 부족 26.6%, 환자 유치 및 의료 광고에 대한 규제 20.8%, 의료 관광 전문 인력의 부재 15.6%, 의료 특구 지정 홍보 등 정부 지원 부족 14.5%등이 조사되었다[9].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 의료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의료관광에 대한 인식 부족과 각종 규제로 의료관광 상품개발, 투자유치, 마케팅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4], 또한 의료비자 문제, 의료관광 운영시스템의 부족,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에 대한 대응책 미흡들이 국내 의료관광의 한계이다. 그러나 미흡한 국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내의료관광에 대한 전망은 높은 실정이다[10].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김[11]의 연구에서 치과 44.4%, 일반과 36%, 한방 19.6%의 순으로 해외 환자를 진료한 경험이 있다고 나타났다. 치과와 성형외과가 국내 의료관광 분야 중 해외 환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유는 국가별 진료비의 차이가 크고 미용과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이다[12]. 치과 의료관광 산업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LA지역 소비자 20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13],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는 건강검진이 63.9%, 성형 13.9%, 한방 12.7%, 치과 임플란트 7%순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가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 역시 응답자 30.6%가 건강검진을 꼽았고 다음으로는 치과 임플란트 20%, 성형 18.8%, 한방 11.8% 순으로 나타나 치과분야 의료관광의 성공가능성과 잠재력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 동안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의료관광의 인식도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14-16]는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치과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앞으로의 치과계 전문 인력이 될 치위생학과 재학생들의 의료관광에 관한 인식 및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요인을 조사함으로써 향후 의료관광에 대한 치과계 전문 인력의 인식개선과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의료관광에 대한 인식과 활성화 방안을 위한 연구로 부산, 경남 소재 전체 4년제 치위생학과 4개 대학의 학과관리자에게 연구에 관해 설명한 후 조사를 승낙한 3학년, 4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응답자들이 직접 응답하는 자가 기입 식 방법에 의해 이루어 졌으며, 선다형 문항을 통해 답하도록 하였다. 본 조사는 2013년 4월 3일부터 2013년 4월 17일 2주 동안 실시되었다. 배포된 총 설문지는 220부였으며, 통계분석에 활용될 수 있는 유효 응답지는 204부로 평균 유효응답자의 회수율은 92.7%이다.

2. 연구도구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의료관광 인지도 및 활성화 방안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는 박[14]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기초 항목 3문항, 의료관광 인지도 10문항, 의료관광 활성화 9문항, 의료관광 경쟁력 방안 20문

항으로 총 4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료관광 경쟁력 방안에 관한 설문은 의료시스템 요인 4문항, 홍보 및 마케팅 요인 3문항, 관광자원 개발 요인 5문항, 비용 요인 3문항, 의료의 질 요인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중요도의 정도에 따라 “전혀 중요하지 않다”를 1점으로 “매우 중요하다”를 5점으로 표시하여 처리하였고,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문항은 역 환산 처리하였다. 신뢰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Cronbach's Alpha Test를 실시한 결과, Cronbach's Alpha 값은 0.89로 나타났다

3. 통계처리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 version 2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의료관광 인식도 및 활성화 방안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의료관광 경쟁력 방안에 대해 평균과 표준편차의 기술통계량을 구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로 살펴보았으며, 학년, 학업성적, 경제수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Table 1>.

학업성적은 상위권이 10.3%, 중상위권이 38.2%, 중위권이 39.2%, 중하위권이 9.3%, 하위권이 2.9%로 나타났다. 가족의 경제수준은 보통이다가 67.6%, 여유가 있다가 13.2%, 부족한 편이다가 14.7%로 조사되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N	%
Grade	3	101	49.5
	4	103	50.5
Academic performance	High level	21	10.3
	Mid-upper level	78	38.2
	Middle level	80	39.2
	Low and medium level	19	9.3
	Low level	6	2.9
Economic status	High level	2	1.0
	Mid-upper level	27	13.2
	Middle level	138	67.6
	Low and medium level	30	14.7
	Low level	7	3.4

2. 의료관광 인지도

의료관광 인지도 조사에서 의료관광에 대해 ‘알고 있다’ 78.9%, ‘모른다.’ 21.1%로 조사되었다. 인지 경로는 TV 24.5%, 지인 17.6%, 인터넷 16.7%, 신문 5.4%, 광고 4.4%의 순으로 응답해 TV를 통한 인지 경로가 가장 높았다.

의료관광의 개념에 대해서는 병의 치료를 위한 관광 57.8%, 대체의학의 경험을 위한 관광 15.2%, 휴가나 휴식을 위한 관광 10.8%, 건강 진단을 위한 관광 8.8%, 스파나 온천의 웰빙 관광 6.9%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연구 대상자들의 의료관광 관심분야에 대해서는 성형수술 27.9%, 다이어트 17.2%, 휴식 17.2%, 치아 15.7% 체질개선 7.4%, 건강진단 5.9%로 조사되었다. 외국인이 선호할 의료기관으로는 성형외과 88.2%, 치과 5.9%, 내과 2.5%, 피부과 2.0%로 조사되었으며, 그렇게 생각한 이유에 대해서는 국내 의료기술의 우수성 48.0%, 수요와 공급이 많음 37.7%, 저렴한 비용 6.4%, 의료관광 네트워크 형성이 잘 되어있음 5.9%로 국내 의료기술의 우수성과 수요와 공급이 많음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Table 2>.

3. 우리나라 의료관광 현황 인식

우리나라의 의료관광 현황 조사에서 조사자들은 의료관광에 대한 목적 인지도가 2.97로 나타났으며, 본인이 의료관광을 경험할 의향은 2.88로 조사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의료관광 수준은 3.35로 조사되었고, 우리나라의 의료관광 활성화 정도는 3.17로 나타났다<Table 3>.

4. 의료관광 활성화 요인

우리나라 의료관광의 활성화 요인에 대한 조사에서는 <Table 4>와 같이 우리나라 의료관광의 강점은 우수한 의료기술력 60.8%, 외국 대비 저비용 10.3%, 세계수준의 의료센터 9.8%,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 6.9%, 관광개발 기금 등의 재정지원 4.9%, 재외 교민들을 향한 홍보 마케팅 3.9%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 의료관광의 활성화에 있어 약점은 정부의 인식부족, 투자유치의 어려움이 23.5%, 의료관광 기획 및 운영 전문가 부족이 22.5%, 대국민 의식과 서비스 인식의 부족이 21.6%, 경쟁국과 비교한 낮은 지명도가 17.6%, 의료관광에 대한 관광업체의 낮은 인식 8.3%, 미흡한 의료관광 상품 5.9%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의료관광 코디네이터에 대해서는 59.3%가 배치되어야 한다, 40.7%가 배치되지 않아도 된다고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의 효과적인 의료관광 상품으로는 미

용의료관광 60.8%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휴양의 6.9%의 순으로 나타났다.
 료관광 19.1%, 질병의료관광 12.3%, 전통의료관광

<Table 2> The recognition of medical tourism

	Variables	N	%
Recognition of medical tourism	Yes	161	78.9
	No	43	21.1
Process of recognition	TV	50	24.5
	Newspaper	11	5.4
	Friendly people	36	17.6
	Advertisement	9	4.4
	Internet	34	16.7
	School	18	8.8
	etc.	3	1.5
Concept of medical tourism	Treatment of disease	118	57.8
	Spas or Hot Springs	14	6.9
	Holiday or rest	22	10.8
	Experience of Alternative Medicine	31	15.2
	Buy drugs	1	0.5
Treatment of interest	Medical examination	18	8.8
	Plastic Surgery	57	27.9
	Improvement of physical constitution	15	7.4
	Teeth	32	15.7
	Vacation and relaxation	35	17.2
	LASIK	15	7.4
	Diet	35	17.2
	Internal organ transplant	3	1.5
	Medical examination	12	5.9
Desired medical institutions	Dermatology	4	2.0
	Plastic Surgery	180	88.2
	Internal medicine	5	2.5
	Dental service	12	5.9
Select the reason for the medical institutions	Surgery	3	1.5
	Excellence in medical technology	98	48.0
	Sufficient demand and supply	77	37.7
	Low Cost	13	6.4
	Medical Tourism Network	12	5.9
	etc.	4	2.0

<Table 3> The status of medical tourism

	Variables	Mean	SD
Purposes of medical tourism		2.97	0.94
Interest in medical tourism experience		2.88	0.82
Medical Tourism Level in Korea		3.35	0.82
Degree of activation of medical tourism in Korea		3.17	0.78

<Table 4> Enabling factors for medical tourism

	Variables	N	%
Advantage of medical tourism in Korea	Superior medical technology	124	60.8
	Government support	14	6.9
	Financial support	10	4.9
	World-class medical center	20	9.8
	Low Cost	21	10.3
	PR and marketing	8	3.9
	etc.	7	3.5
Weakness of medical tourism in Korea	Popularity	36	17.6
	Planning professionals	46	22.5
	Government support	48	23.5
	Medical tourism products	12	5.9
	Awareness of tourism businesses	17	8.3
	Public awareness	44	21.6
	etc.	1	0.5
deployment of Medical tourism coordinator	Positive	121	59.3
	Negative	83	40.7
Effective medical tourism	Treatment of disease	25	12.3
	Traditional treatment	14	6.9
	Beauty treatment	124	60.8
	Recreation Therapy	39	19.1
	etc.	2	1.0

5. 의료관광 경쟁력 요인

의료관광 경쟁력 요인에 대한 조사에서는 <Table 5>와 같이 국내 의료관광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의료의 질 요인이 4.37로 가장 높았으며, 의료시스템 요인 4.15, 의료관광지 홍보 요인 4.08, 비용 요인 3.84, 관광자원 개발 요인 3.59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요인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의료진의 친절성과 진료상의 의사소통이 4.52로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의료서비스의 질 4.50, 의료사고분쟁 대응책 4.25, 의료시설의 현대화 4.23, 사전/사후 관리시스템 4.09, 의료기관의 명성 및 평판 4.08, 의료관광지로서의 인지도 4.08, 목적지의 안정성 4.07, 기존 의료서비스와의 차별성 4.03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Table 5> Medical Tourism Competitiveness Plan

	Variables	Mean	SD
Medical System	Difference existing health services	4.03	0.76
	Kindness of the medical staff	4.52	0.65
	Communication on health care	4.52	0.64
	Systematic service	3.75	0.76
	Management System	4.09	0.75
	Information Systems	3.92	0.72
	Corresponding medical disputes	4.25	0.77
	Total	4.15	0.50
Medical tourist promotion	Recognized as a medical tourist destination	4.08	0.79
	Recognized as a medical center	4.08	0.79
	Stability	4.07	0.83
	Total	4.08	0.68
Development of tourism resources	The link with nearby resources	3.73	0.86
	Variety of tour programs	3.78	0.84
	Landscapes and climate	3.26	0.86
	food	3.39	0.90
	Shopping and Accommodation	3.80	0.84
	Total	3.59	0.62
Cost of treatment	Easy access	3.91	0.81
	Travel and medical expenses	3.90	0.80
	Insurance coverage	3.72	0.89
	Total	3.84	0.64
Advancement of Medical	Quality of Medical Services	4.50	0.61
	Modernization of health facilities	4.23	0.60
	Total	4.37	0.54

IV. 고찰

우리나라는 높은 의료기술과 체계화된 의료서비스를 바탕으로 의료관광 관련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산업의 규모는 더 확대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관광 수요측정, 전문화된 서비스인력 양성, 의료서비스 규격화 등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1].

본 연구는 부산·경남지역의 치위생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의료관광에 대한 학생들의 인지도 및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항들과 의료관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였다. 치위생학과 학생들은 의료관광에 대해 '알고 있다' 78.9%, '모른다.' 21.1%로 나타나, 기존 부산지역 의료기관 종사자의 의료관광

인지도를 조사한 박[14]의 연구 결과인 '들어본 적이 있다' 68.8% 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이는 현대인의 여가활동의 증가와 생활환경 개선에 따른 의료관광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와,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비해 학생들이 TV나 인터넷 등 다양한 언론매체에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의료관광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병의 치료를 위한 관광'이 58.7%로 가장 높게 나타나 박[14]의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나왔으며 또한, 학생들은 '휴식 및 휴가를 위한 관광' 10.8%, '스파나 온천의 웰빙 관광' 6.9%로 조사되어 의료관광이 치료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관광의 개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대상자의 의료관광 관심분야는 성형수술 27.9%로 가장 높게 나타나, 박[14]의 '체질개선'이 가장 높게 나온 결과와 상이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

의 대상자가 여대생들로 이들의 주 관심이 미용이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최근 한류열풍을 타고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으로 일반 관광 혹은 성형수술이나 스킨케어러를 받으러 오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기에 이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의료계의 장점을 집중 홍보하고 정부차원의 국제적 마케팅을 유도한다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치위생학과 학생들이 생각하는 해외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의료기관으로는 성형외과가 88.5%로 가장 높았으며, 이유로는 우수한 국내 의료기술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많은 수요와 공급, 저렴한 비용, 잘 형성된 의료관광 네트워크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관광객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나라 중 하나인 인도를 대상으로 한 주[6]의 연구 중 의료관광에 있어 가장 큰 장점인 '저렴한 의료비용'과는 사뭇 다른 결과로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성형외과와 치과의 우수한 의료기술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의료관광에 대한 목적 인지도는 2.97로 조사되어 의료관광 인지도 79.8%에 비해 의료관광의 정확한 목적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향후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교육과정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의료관광 경험 의향에 대해서도 2.88로 나타나 경험 의향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기술과 저렴한 치료비용 때문에 해외 치료의 필요성이 낮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의료관광 활성화 정도는 3.17로 조사되었으며, 우리나라 의료관광의 가장 큰 강점으로 60.8%가 우수한 의료기술력, 외국 대비 저비용 10.3%, 세계수준의 의료센터 9.8%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한국인에 많이 발생하는 6대 암에 대한 독자적인 신기술 개발과 비 보험 서비스 의료분야의 높은 의료기술수준으로 인한 경쟁력 확보로 볼 수 있다[1]. 반면 우리나라 의료관광의 가장 큰 약점으로는 정부의 인식 부족과 투자유치의 어려움, 의료관광 기획 및 운영 전문가 부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가 우수한 의료기술, 경쟁력 있는 가격 등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료관광에 대한 인식 부족에 의한 투자유치의 어려움 때문에 상대적으로 의료관광산업의 경쟁력이 낮다고 볼 수 있기에, 의료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지원과 투자유치를 위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는 단순 통역업무만을 하는 인력이 아니라 외국인환자와 동반 가족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돕고 관광서비스 또한 지원하게 되는 전문 직종이므로 외국어 능력 뿐 아니라 매너, 병원 시스템에 대한 이해, 관광 가이드 등 여러 분야의 지식과 능력을 고루 갖추고, 의료관광분야에서 한국을 알리는데 직접적으로 외국인을 대하는 작은 외교관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다[15]. 본 연구에서 의료기관의 의료관광 코디네이터가 배치에 대해서도 59.3%로 대부분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다. 이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에게 좀 더 개방적일 필요가 있으며 의료관광 코디네이터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치위생학과 재학생들은 미용의료관광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가장 경쟁력 있다고 응답해, 부산지역 관광객을 대상으로 경험하고 싶은 의료관광 상품에 대해 연구한 김[19]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용의료 분야의 기술 향상과 서비스 체계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향후 의료관광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상품개발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경쟁력 향상을 위한 요인 조사에서는 의료서비스의 질, 의료시설의 현대화 등 의료의 질 요인이 4.37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의료서비스의 질이 4.50으로 높게 조사되었으나, 의료서비스의 품질확보 문제는 의료계의 몫이며 세계적 수준평균 이상의 품질이 확보되어야 함은 물론, 가급적 세계적 수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며[16], 의료시설의 현대화는 의료관광객의 치료에 대한 기대수준 향상에 기여하리라 본다. 박[14]의 연구에서도 의료기술의 현대성이 4.23으로 높게 나와 의료관광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시설의 현대화뿐만 아니라 의료기술의 현대화에 대한 투자도 함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17]의 연구에서 의료시설 이용 시 문제점으로 는 의사소통 문제가 전체응답자 58.6%로 나타났으며, 외국인의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의사소통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17]. 또한, 하[18]는 소비자가 원하는 세심하고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의료관광객들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고, 언어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통역과 의학용어 및 질환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 환자를 응대하도록 체계적인 의료전문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의료시스템 요인이 4.15로 조사되었는데 의료진의 친절성과 진료상의 의사소통이 4.53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즉, 의료진의 친절성은 물론, 의사소통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 코디네이터의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인력양성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며 치료목적 방문 이전 치료 상담, 일정계획수립, 체제계획, 항공교통, 비자 문제 등 사전 문제와 치료이후 귀국한 상황에서 치료관리 및 상담 등의 사후 관리 문제를 계획하고 해결하기 위해 현지 병원과 협력관계 체결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대응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관광지 개발 요인은 3.59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는데 이는, 의료관광산업의 주요인이 의료산업에 중점을 두고 관광산업은 부가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인식 때문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향후 의료관광소비자의 지속적 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관광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차별성을 전략적으로 내세울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 의료관광객들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결과 고부가가치산업인 의료

관광에 대한 치위생학과 학생의 의료관광 인지는 높은 편이었으나 의료관광의 목적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의료관광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증대를 위한 의료관광 관련 부가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국내 의료관광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의료의 질적 향상, 체계화된 의료관리 시스템 구축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 마케팅의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개발 및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가 부산·경남지역의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되었기에 의료관광산업의 인지도와 활성화 방안을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줄이기 위한 치과 의료계의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세부요인의 추가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치위생학과 재학생들의 의료관광에 관한 인식 및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요인을 조사한 본 연구가 의료관광에 대한 치과 전문 인력의 인식개선과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발전 방향 제시를 위한 기초자료가 되리라 본다.

V. 결론

부산·경남 소재 4개 대학 치위생학과 학생들 204명을 대상으로 2013년 4월 3일부터 2013년 4월 17일까지 의료관광에 대한 인식과 활성화 방안 및 의료관광 경쟁력 확보 요인을 조사한 본 연구에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치위생학과 학생들이 느끼는 우리나라의 의료관광 수준은 3.35, 의료관광 활성화 정도는 3.17로 나타났다
2. 의료관광에 대한 목적 인지도는 2.97, 본인이 의료관광을 경험할 의향은 2.88로 조사되었다
3. 국내 의료관광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는 의료의 질 요인이 4.37로 가장 높았으며, 의료

시스템 요인 4.15, 의료관광지 홍보 요인 4.08, 비용 요인 3.84, 관광자원 개발 요인 3.59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 결과, 고부가가치산업인 의료관광에 대한 치위생학과 학생의 의료관광 인지는 높은 편이었으나 의료관광의 목적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의료관광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증대를 위한 의료관광 관련 교육이 필요하며, 국내 의료관광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의료의 질적 향상, 체계화된 의료관리 시스템 구축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 마케팅의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 개발 및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치위생학과 재학생들의 의료관광에 관한 인식 및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요인을 조사한 본 연구가 의료관광에 대한 치과 전문 인력의 인식개선과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 방향 제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가 되리라 본다.

참고문헌

1. Kim JK, Kim EJ: Original Article : A recognition study on tourism of dental hygienist in parts area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Dental Hygiene Education* 12(4):715-722, 2012.
2. Joo KK: A study on the global marketing strategy for medical tourism.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2010.
3. Oh YI: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Satisfaction and Loyalty of Korean Medical Tourism. master's thesis, Kyung He University, Seoul, 2011.
4. Park JY: A Study on the Measures for Advancement of Medical Tourism Industry in Korea.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Seoul, 2008.
5. Lee WK, Chung BW: A Case Study for the

- Activation of Medical Tourism. *Korea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21(2):389-406, 2007.
6. Ju MY: A Study on the Importance of Selecting Options in Medical Tourism Service : Focused on Inbound Japanese Tourists. master's thesis, Paichai University, Daejeon, 2011.
7. Cho KH: An Exploratory Study on the Activation Plan of Medical Tourism in Korea. *Korea Academic Society of Hotel Administration* 15(4):189-203, 2006.
8. Shin YS: Prospects and Development Measures for the Medical Tourism in Korea. *The Civilization Journal(MUNMYUNG YONGIE)* 9(1):41-70, 2008.
9.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Developing a method to attract foreign patients for upbringing healthcare services industry.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2006.
10. Ryoo SJ: Study on ways to promote International Medical Tourism in Busan : Comparative analysis of best practices in Medical Tourism in Asia. master's thesis, Bukyoung National University, Busan, 2013.
11. Kim MJ: A Study of Identifying an Optimal Medical Tourism Product as Preferred by Japanese Tourists Using a Mixed Logit Model. doctoral dissertation, Sejong University, Seoul, 2009.
12. Cho HJ: The Strategies to promote Dental Tourism Industry under the Healthcare Market Liberalization.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2010.
13. Korea Tourism Organization: The Plan of Vitalization for Medical Tourism Industry in Korea, *Korea Tourism Policy Spring*:123-126, 2006.
14. Park CY: Activation Plan and Knowledge of Health Care Personnel in Busan about Medical Tourism Industry. master's thesis, Kosin

University, Busan, 2009.

15. Kim MK: Study on the role recognition of medical tourism coordinators: Centered on Medical related people, Institutes, Agencies that deal with Foreigner Patients. master's thesis, Kyungsoong University, Busan, 2012.
16. Lim BJ, Yoon BK, Kwon SK: A Study on the Development Method for Medical Tourism Products in Korea. Korea Academic Society of Hotel Administration 18(3):333-334, 2009.
17. Lee HN: Medical information and satisfaction of medical service for Native English teachers in Daegu.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2011.
18. Ha HJ: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for korean medical tourism industry due to the health care market opening : Focusing on the solutions for medical dispute.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Busan, 2013.
19. Kim BG: Study on developing a successful medical tourism model for Busan metropolitan city. master's thesis, Kosin University, Busan, 2009.

접수일자 2013년 9월 23일
심사일자 2013년 9월 27일
게재확정일자 2013년 10월 10일